

E-05 이직·부업·창업과 소득변동

새 소득의 크기보다 공백기간·세금·사회보험·사업자금의 경계를 먼저 확인합니다.

학습자용

생활 장면에서 출발해 개념·비교·행동·회복 순서로 익히는 본 학습자료

판본 1.0.0 · 기준일 2026-09-01 · 다음 점검 2026-12-01

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청·세금·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.

1. 왜 배우는가

이직·부업·창업은 소득을 늘릴 수 있지만 지급시기, 비용, 세금, 사회보험과 퇴직급여를 바꿉니다. 예상매출을 가계 소득처럼 쓰기 전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분리해야 합니다.

근로소득·사업소득·기타소득은 발생과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사업자금과 생활비, 매출과 이익, 세전금액과 가처분소득을 구분합니다.

2. 먼저 알아야 할 말

소득공백

이전 소득이 끝난 뒤 새 소득이 실제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입니다.

생활 예: 이직일과 첫 급여일 사이의 생활비를 계산합니다.

매출과 이익

매출에서 사업비용을 빼야 사업에서 남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

생활 예: 플랫폼 수수료·재료비·세금준비금을 분리합니다.

세금준비금

향후 신고·납부에 대비해 별도로 남겨 두는 돈입니다.

생활 예: 부업대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별도 계좌에 둡니다.

3. 판단 순서

- 1단계. 이전 소득 종료일과 새 소득 입금일을 표시한다
- 2단계. 세전수입에서 비용·세금·보험을 분리한다
- 3단계. 사업자금과 가계생활비 계좌를 나눈다
- 4단계. 기본·보수·악화 세 가지 매출을 계산한다
- 5단계. 중단 기준과 상담할 공식 창구를 정한다

4. 맞는 예와 반대 예

비교 1

맞는 접근: 첫 입금 전 공백기간과 퇴직·보험 변화를 확인한다

반대 접근: 새 연봉만 비교해 바로 퇴사한다

이유: 연간 소득이 늘어도 입금 공백과 제도 변화가 단기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비교 2

맞는 접근: 매출에서 비용·세금준비금·운전자금을 분리한다

반대 접근: 사업계좌 입금액을 바로 생활비로 옮긴다

이유: 매출과 가처분소득을 혼동하면 납부와 운영자금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.

5. 내가 해 보기

가상 이직자와 부업자의 6개월 입출금표에서 소득공백과 실제 가처분소득을 계산합니다.

-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.
- 비용·위험·권리·기간을 비교표에 적습니다.
- 결정과 이유, 추가로 확인할 공식 창구를 기록합니다.

가상자료만 사용합니다. 실제 소득·자산·부채·계좌번호·가족갈등·피해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.

6. 문제가 생겼다면

- 추가 송금·서명·해지·앱 조작을 멈춥니다.
- 계약서·설명서·화면·대화·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
- 1397 서민금융콜센터
- 1600-5500 신용회복위원회
- 132 대한법률구조공단

7. 오늘의 한 행동

내 소득원의 지급일·비용·세금 확인사항을 각각 적습니다.

공식 근거와 이용 전 확인

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

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lId=7777&mi=2444>

국가법령정보센터

<https://www.law.go.kr/>
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안내

<https://www.nhis.or.kr/>

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생활 지원

<https://www.kinfa.or.kr/>

일반 교육자료이며 개인별 계약·세금·법률·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.